



대행 스님

## 근본 하나에서 일체 만법이 다 나옵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그리고 고가 고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물에 가면은 이런 게 많아요. 내가 외국에 가서도 바다에 나가봤더니 글썽, 요만한 돌들이요. 그냥 돌짜같이 그렇게 얼마나 이쁘게 그 모래톱에 나와 있는지 그거를 주위모아 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지원마다 돌아다녔죠. 또 하하하. 그거를 보면서 뭘 생각한 줄 아십니까? '어, 세상에 미생물도 이렇게 조약돌이 구르듯 그렇게 치열하게 굴러서 진화가 돼서 또 판 게 되고, 자기의 생각대로 아쉬움대로, 아쉬운 걸 생각하는 대로 진화가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부대끼지 않는다면은 동그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매끄럽지도 않고, 남이 쓸모 있다고 줍지도 않을 거요.'

오늘 질문하실 거 없습니까? 뭐 대답하다고 뭐쳐나가고, 자기 사랑이요. 이렇다고 나가고 저렇다고 안 하고, 이렇다고 속속해서 싸우고... 우리 스님들은 더더욱 고가 고가 아니라 우리를 닦아주는 정수라는 생각을 해야 돼. 관정(灌頂)에 정수가 드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을 다 이익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돼야 관정에 정수가 드는 법이야. 그런데 이 세상에 모든 부처님 머리에도 물 끼었다고 해서 자기 머리에 정수가 드는 줄 알아? 그거는 그냥 표현이야.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그건 진실이 못되지, 실전이 못되고 그런 거 아무리 도깨비 장난처럼 장난을 해 봤자야 그 덕이 그 덕이지. 내가 이 한마디만 더 하고요.

모두가 수익업을 거처오면서 컴퓨터에 입력되듯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됐다고 그랬죠. 그렇게 입력이 되는 것을 누구를 탓하고 그러라! 모든 것은 자기한테 입력이 돼서 차례차례 나오는 거를 차례차례로 좋게 나오면은 감사하게 놓고, 언짢게 나오면 '네가, 네가 그랬던 거니까 네가 해결을 해야잖아!' 하고 거기다가 나와 그제 몽땅 그냥 죽는 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보게 되고, 그렇게 관정에 정수가 들게 되죠. 그제 우주의 정수이기 때문에. 그러고도 과거 현재 미래, 삼세계를 한데 초월해서 합친 정수이기 때문에 그제 보통 말로, 이론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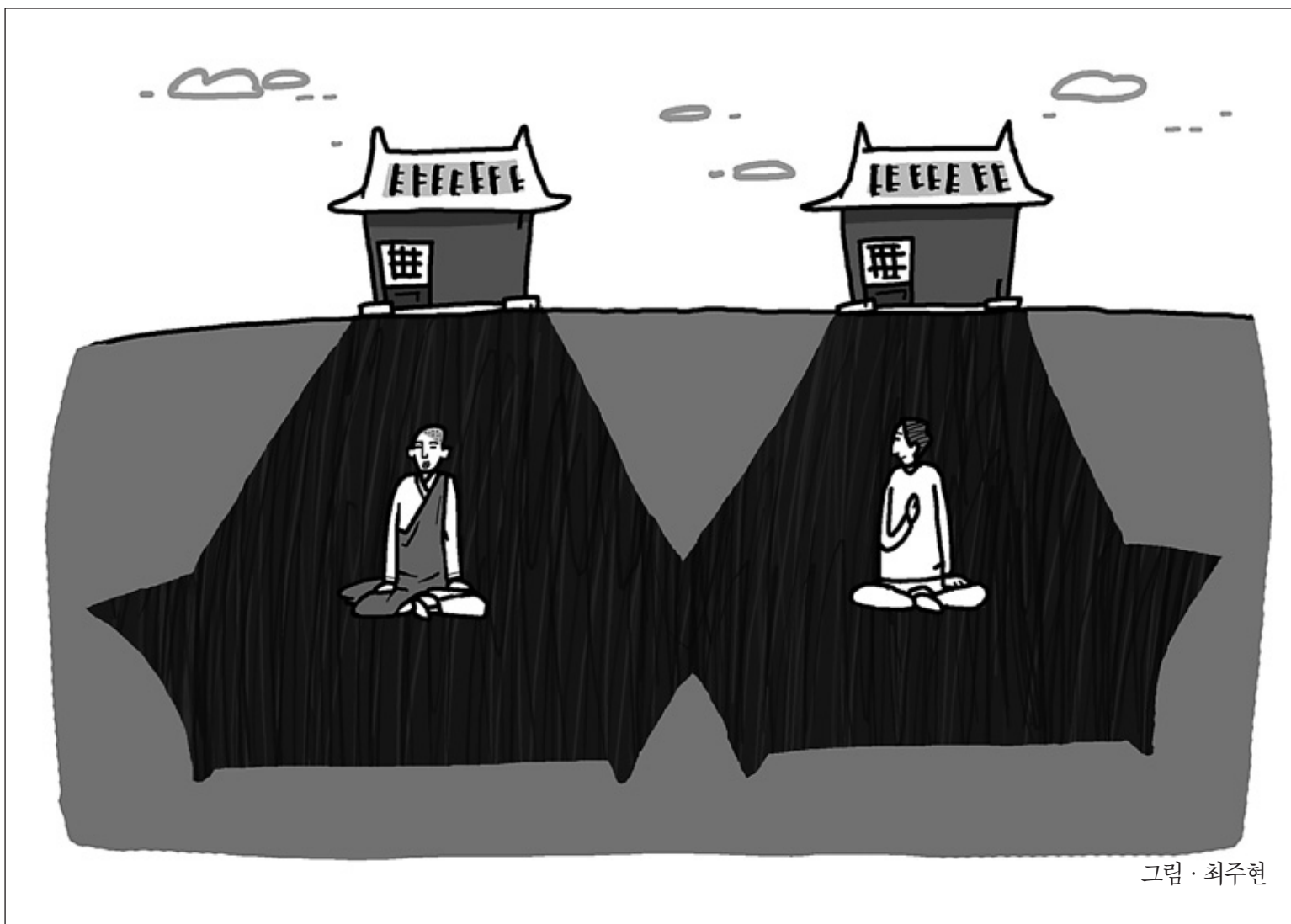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럼 질문하세요.

**질문자1(여)** : 큰스님, 죄송합니다. 매일매일 아주 잘 가르쳐 주셔서 그 실천을 못하는 것 같아서 늘 죄송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이 선원 올 때는 신장이 아주 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스님께서 뭐 초야 같은 것도 먹고 그러라고 해서 부은 건 빠졌는데 그래도 매일 편지는 못해요. 그냥, 짜뿌듯하고 걸으려면 이 다리가 무겁고, 그래도 그냥 그냥 공부랍시고 저 나름대로는 부지런히 큰스님 법문 들으면서 해 가는데, 한 달 전쯤에는 몸이 막 비틀려요. 그래서 밤 되면 이렇게 숨도 계속 쉬어지지 않고 순간순간 숨차 오르고 잠이 안 오면 막 창문을 열어야 하고 그래서 뭐가 관도 해 보고 그러지만...

**큰스님** : 이거 보세요. 말씀하시는데 중간을 끊는 건 안됐지만 난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귀찮으로도 듣지 않아요. 왜냐? 그거는 자기가 자기 믿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 통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속의 의식들이 작용을 안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머리로 대뇌로 해서 통신이 돼야 이게, 즉 말하지만 중뇌에서 책정을 해서 사대(四大)로 통신이 돼서 그 작용을 해주게 돼 있는데, 그 근처에 가기도 않는데, 방에 불을 환하게 켜려면 스위치를 누르는 것도 모르고, 거기 그 근처에 가기도 못하니 어떻게 방에 불을 환하게 켜니까? 그런 거를 누구한테 탄탄을 합니까?

내가 항상 그러죠. 죽는 거 먹는 거 똥 누는 거, 자는 거 아픈 거, 이것 다섯 가지는, 깨치는

거, 그거 여섯 가지는 도저히 부처가 이 자리에 있어야 그건 대신 못해 준다고 하죠? 그러니까 당신 알아서 하세요. 내가 알려 줘도 그렇게 못하시는 분은 어떻게 할 수 있지 어떡합니까? 내가 의사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공의 성품은 그대로 지장이요. 그대로 칠성이요. 그대로 관세음요. 그대로 아축요. 아미타요, 미륵이요. 용신이요, 또는 그대로 의사며 약사며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네들이 그렇게 믿지 못하는데, 아, 남의 이름은 그렇게 잘 믿고 이 부처님 형상은 잘 믿어도 자기 뿌리를 믿으려는 데는 왜 그렇게 못 믿습니까? 나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주인공의 근본 성품도 저 (등 뒤의 부처님을 가리키시며) 부처님하고 둘이 아니요,

그 모습도 둘이 아니요, 마음도 둘이 아니란 얘깁니다. 당신 알아서 하세요, 그거 놓고.

**질문자1(여)** : 왜 믿어지지 않는지, 믿고 싶어요, 저도.

**큰스님** : 아 아, 그런 거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글썽.

**질문자1(여)** : 네.

**큰스님** : 날 냉정하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냉정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한 치도 한 걸음도 떼어 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질문자2(여)** : 큰스님, 죄송합니다. 아들 일로 지난달에 큰스님 친견하고 갑니다. 그 뒤로 집에서 큰스님 말씀 따르자고 집에서 계속 아들의 아버지하고 같이 파르다가 그래도 주위에서 믿지 않고 모두 야단이나까 못 이기고 병원에 입원해서 내일 수술하게 됐습니다. 스님, 우리 아들도 절에 왔다 가면 마음 편안히 좋다고 수술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진단서를 떼어 오라고 해서 갔다가 의사가 겁나는 소리를 하니까...

**큰스님** : 그런데 왜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의사의 마음하고 맥의 주인공의 마음하고 둘이 아니게 된다면 그대로 수술해도 잘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법이고 저렇게 해도 법이고, 가는 것도 법이고 안 가는 것도 법이요. 그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상황대로 능동적으로, 상황대로 지혜롭게 해라. 가서 될 일이라면 가고 안 가서 될 일이라면 가지 말고, 이거 상황대로 하는 거지, 그제 법이지 아, 법을 어디서 꾸어다 붙여놨습니까? 안 간다는 법도 없고 간다는 법도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 그제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시고 그러니까? 거 좀, 사람 죽고 사는 데도 좀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죽고 사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해요? 아,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또 죽는다 해서 웃을 벗는 거지 아주 죽는 게 아니니까. 허, 참 그렇게 들 그러지 마세요. 그래야 이게 더 한층, '아하!

☞ 26면으로 계속

### 무료 수강생 모집

"아는 것이 힘입니다, 기술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재력입니다"

이 기술은 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통증관리사 등 건강과 관련한 직종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기술이다.

이 기술은 우리 인체의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즉석에서 제거할 수 있는 신비한 기술이다. (각종 두통, 목이나 허리 디스크, 척추 전만 후만 측만증, 척추 협착증, 오십견 각종 어깨의 통증, 팔을 들지 못하는 증, 팔의 화전이 어려운 등 골반이 변위되어 각종 통증을 발생한 경우, 몸이 한쪽으로 기울는 경우, 장단축, 무릎이나 발목의 변위로 발생하는 각종 통증 등 1000여종이 넘는 수많은 외과적인 질병들이 즉석에서 회복하는 것을 직접 실기로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여 드립니다)

- 효과는 마약이나 진통제보다 빠르게 즉석에서 효력을 알 수 있음.
- 부작용은 단 1%로도 없음.
- 도구야 필요하지 않음.
- 이 기술은 경력의 이름이나, 근육의 명칭이나, 골격의 명칭이나, 병명을 몰라도 치료되는 기술이라 배우기가 너무나 쉬워 배우면 즉석에서 활용하는 기술임.
- 시술 시에 힘이 들지 않아 하루 수십명도 시술이 가능함.
- 이 기술을 배운 후 취업이나 창업도 지원함.

원심한의원 051)802-0661

원심수기 보존회장 원공 019-305-9138

### 수행템플스테이 (깨달은 다이어트)



머리의 번뇌를 쉬고  
입을 쉬고 내장을 쉬는  
지혜로운 템플스테이

※ 절, 염불, 독경, 참선, 외선, 행선, 부처님오심법, 알아차림을 완벽하게 배우고 점검을 받으며 실천수행

#### 청견스님 직접 수행교육지도

잠들깨고 혼침 출음 시가며 피로풀고 스트레스 날리고 삼매 깨달음 100% 이해하고 언제나 어디든 마음챙김 알아차림

● 대상(누구나): 출가예정자 행사 사미 사미니는 미래불공덕회에서 수련회비 전액 후원

◆ 수행일정(예약신청)  
9차: 4/16 ~ 4/17 12차: 6/11 ~ 6/12  
10차: 5/ 7 ~ 5/ 8 13차: 6/18 ~ 6/19  
11차: 5/14 ~ 5/15 14차: 7/ 2 ~ 7/ 3

### 법왕정사 부산법당

전화: 051)583-7886  
www.법왕정사.kr(수행템플스테이)참조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종안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 (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집합니다.

####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건(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집한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사: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1-545-5060

###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 사찰 전기공사 상담대환영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 내 마음의 보배를 빛이 나에게 닦아보세요

☞ 25면에서 계속

이게 저 사람이 마음을 저렇게 가지니 나라도 해야지 안 되겠다.' 그리고 주인공이 외려 자기 몸을 더 아껴서 다스려준다 이 소립니다. 보이지 않는 데의 약을 접수시도록 열심히 하세요.

**질문자3(남)** : 저는 대학에서 물리학 강의를 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은연중에 저희가 말을 하다 보면은 큰스님 법문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오늘도 큰스님께서는 칠차원 세계를 얘기해 주셨지만 보통 그 전까지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삼차원 세계를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시간이라는 하나의 세계를 더 집어 넣어서 사차원 세계까지 한 것을 저희들 물리학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스님께서도 그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칠차원까지를 얘기해 주시니까 저는 물론 거기는 마음으로 전부 다 전달되는 그런 세계라고 믿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차원 세계에서 오차원 육차원 칠차원까지이니까 너무 엄청나서 과연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큰스님** : 부처님께서 칠차원의 정보를 가득히 받고 다 아는 중생 아닌 중생이 없이, 나 아이미 없이 내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자연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돼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모두 알게 되고 머리가 깨이고 이러한 것도 부처님이 그 뜻을 먼저 깨달아서 먼저 생각을 그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 칠차원을 넘어서야 모든 우주의 섭리, 모든 것을 다 내가 얻은 게 없이 얻어서 다 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보배라는 것은 전부 깨달은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깨달은 마음은 마니주(摩尼珠)라고 합니다. 마니주 구슬이라고 용이 돼서 올라가려면 여의주를 물어야 올라간다고 하죠. 그렇듯이 인간도 차원이 높아지면 여의주, 즉 말하자면 자기 마음이 보배가 아니라고 안 되죠. 마음이 아니라면 절대로 보배를 얻을 수가 없고 또 줄 수도 없습니다. 그 차원까지 가야 칠차원에 이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천백억이라고도 했습니다. 하하하. 그 차원이 말입니다. 수효가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차원이 된단 말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천억도 되고... 말로는 헤아릴 수 없이 그렇게 차원이거나 수효나 보배가 그렇게 많고 보

살의 수효도 그렇게 많고, 중생의 수효도 그렇게 많고, 그래서 그 많은 수효 중에 보배라는 것은 다 똑같다 이거야. 보배를 다듬지 못해서 그렇지, 갈고 닦아서 빛을 내는 그 보배는 보살의 보배고 또 이렇게 내 마음의 보배를 닦지 못한 분들은 그냥 빛이 나질 않죠. 그래서 다 똑같은 보배인데, 빛을 내지 못한 보배가 있고 빛이 난 보배가 있는 것은 그 차원이 보살 차원, 중생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원이라고 말할 때는 차원이라는 말이나 언어가 붙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를 하려니까 칠차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차원이라는 언어가 붙지 않는 자리라 그대로 차원입니다. 차원이 없는 차원이죠, 그러니까.

**질문자3(남)** : 네. 아까 큰스님께서도 우주와

퀴크가 모여서 양성자나 중성자가 되는데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든다면 수소 같은 거기에 양성자나 전자가 하나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그 양성자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퀴크라고 하는 입자가 모여서 다시 말하면 '인연이 만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개의 퀴크 중에서 인연끼리 만나가지고 양성자도 되고 중성자도 되어서, 그것들이 또 인연끼리 만나서 우리가 말하는 수소도 되고, 산소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런 퀴크가 몇 개 모여서 소위 말하는 양성자가 8개면 중성자가 8개이고, 또 전자가 8개 모여서 뭐 기본적인 산소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모든 물질이 인연 따라서 만나서 나무도 되고, 사람 몸도 만들고, 책상도 되고, 또 새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배운단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도리를 배워서, 우리가 그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말을 할 때 천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툭툭 나가지요. 네. 그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근본 하나에서 일체 만법과 일체 만개의 물질이 (세워 든 손가락 주위를 다른 손가락으로 돌려 보시며)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서 다 나가기 때문에 그 하나까지도 없다는 얘깁니다. 너무 많이 진화해서 바뀌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그냥 수없이 바뀌어서 돌아간다. 이런 거를 모르겠 걸랑 하루 사람 사는 동안에 몇 번이나 탄 사람을 보고 돌아갔고, 탄 사람 말을 듣고 돌아갔고, 이렇게 만나고 돌아갔고, 몇 발자국이나 가고 오고, 이렇게 할 동안에, 하루 산 동안에 얼마나 고

방생이라는 뜻은 모든 걸 남을 이익하게 해 주어야 방생이지 내 사리사욕을 취해서 방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방생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말을 합니다. 돈을 뜯겨서 울고불고, 보증을 서고 울고불고, 돈을 빌려 주고 받지를 못해서 울고불고, 그런 사람이 가끔 있죠. 그러면, 애당초에 당신이 밥을 먹고 내가 이것을 빌려 주고 내가 이걸 못 받아도 할 수 없이 그건 꼭 봐야만 되겠다 할 때는 쥐라 이거야. 주되 그거를 되받으려고 생각지는 말라. 그 사람이 잘돼서 잘 때까지, 주게 되면 다행이고 못 주게 되면 외려 그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잘되게만 자주 그저 마음을 내 주면은 언젠가는 가져오지마는 그 사람 안 준다고 그냥 꼭 자기 죽어가는 거 살려 줬더니 안 준다고 그냥 약바득히 미워하고 그냥 욕을 하고 이렇게 되면, 더 망하게 되면은 외려 받지도 못하고 의열이 나고 말입니다. 그 원수가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지고 그게 지금 이생에서만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내생에까지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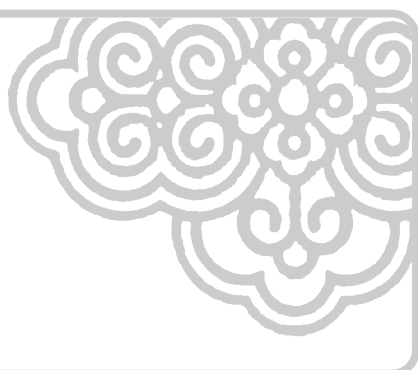
그러니까 아예 받을 생각 하지 말고 쥐라 이겁니다. 난 뭐, 두말할 거 없이 주려면 그렇게 쥐야지 받을 생각을 하고 주면은 안 된다. 그러되, 그 받은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는 갚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은 일이 잘되지마는, '에이그, 그거 뭐 쥐도 그만 안 쥐도 그만, 그 사람은 뭐...' 그렇게 치면은 또 안 되죠. 자기가 잘되지를 않죠. 그러니까 모두가 서로서로 돕는 마음 번치 말고 살아나가는 그 마음의 도리를 우리는 지켜 보면서 잘 이끌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질문자3(남)** : 감사합니다.

**큰스님** : 그럼, 이제 고만 할까요. 하하하. 여러분이요, 드러누워서 잠잘 때에 이런 생각, 이런 생각 하시면 잠 못 자요. 그러니까 잠잘 때는 아무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꼭 주무세요. 그리고 그저 낮에 일어나서 일할 때, 그냥 이렇게 번소에도 가고 일할 때, 그저 일하는 도중에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일을 할 때는 거기에 몰두해서 하고, 손 떼고선 잠깐이라도 쉴 때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시라는 얘깁니다.

※ 위 법문은 1996년 3월 17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정되게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면  
공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어떤 걸 내놓을 게 없이,  
내놓을 게 없이 완성이 돼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들어가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저희들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에는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저희들이 먹고 산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태양에서 그 많은 에너지를 방출해서 그 에너지를 식물이나 프랑크톤이 흡수를 하면, 그 흡수한 식물이나 동물은 먹고 그런 먹이들을 사람들이 먹고 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태양에서 보낸 에너지가 우리 사람들의 몸에 전부 활력소가 되는 에너지가 돼서 태양이 없으면 지구도 태양을 돌고 있으니까 없어지고, 또 우주 전체의 행성이 태양도 우주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따로 보지 않고 항상 같이 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모든 입자가 기본적으로 생긴 것은 여섯 개의 퀴크와 거기에 돌고 있는 전자라고 해서 그것이 원자가 되고 입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큰스님께서도 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현대 물리학 쪽에서 보면 그런 얘기들이 타당성 있게 설명이 되어지고 또 그런 설명을 제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그런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거를 본다면 나무나, 풀이나, 내 몸이나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항상 같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큰스님께서도 물리학을 공부할 안 하셨지만은 진리 자체를 알고 계시니까 그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는 그 감사함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늘 죽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큰스님께서 하시는데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이 만일 잘못했다면은 학생들에게 제가 잘못 가르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점점 받을 게 없어서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물질과 나와 그런 입자와 돌이 아니게 하나로 돌리면 그것을 죽었다고 얘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뜻이 있는지를 한 번 이 기회에 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그 고정되게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면은 공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었다는 얘깁니다. 어떤 걸 내놓을 게 없이, 그러니까 내놓을 게 없이 완성이 돼야 만이 물체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들어가서 모두

정되게 서 있었나 그걸 보라고요. 하나도 서 있었던 게 없고 그냥 초월해서 돌아갔을 뿐이죠? 어떤 거를 했다 안 했다 할 수도 없이.

**질문자3(남)** : 네.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어디를 다녀오다가 어떤 저수지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많은 보살님들이 물가에서 물고기를 저수지에 놓으면서 그렇게 방생을 하시는 걸 보고 대단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의 원정들이 나중에 또 다시 편찬되면서 아야 그런 원뜻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방생 자체를 큰스님께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중생들, 또 물고기, 지나가다가 개구리 한 마리라도, 올챙이 한 마리라도 물이 없어서 이렇게 허덕이면, 물이 있는 곳으로 가져가 주는 게 방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사회에서 진행되는 방생을 보면은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이 기회에 참된 방생이 어떤 것인지 감로법을 청합니다.

**큰스님** : 방생은 뭐, 이 자리에서도 방생이고, 또 지나가다가도 생각 한 번만 해 줘도 방생이고, 이걸 무심 방생, 유심 방생 그저 모두 유체의 방생, 무체의 방생 이게 뭐 헤아릴 수가 없지요.

##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 권선문

삼보에 귀의하옵고  
저희 대한불교고승연합회 복지 지원단에서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에 부처님과 불자를 위해 한생을 바치신 노스님들의 귀의처가 될 고승복지원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하여 귀사찰, 암자 기도원에서 불필요한 폐초 및 불기를 수거하고 있사오니 많은 협조바랍니다.

수거품 : 폐초, 파불상, 촛대, 향로, 제기, 불화, 공양미 등  
복지 기금마련을 위하여 양초 판매하고 있사오니 협조바랍니다.

예금주 : 대한불교고승연합회 / 농협 1124-01-138620

= 자비실천 =

- 수거품이 있으실 때 연락주시면 방문 또는 택배업체 보내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복지단에서 부담합니다)
- 보내실곳 :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삼리 227번지 고승복지단(앞) 전화 031)764-3511 / 팩스 031)764-4711
- 복지지원단에서는 스님 수행하시는데 불편한 각종 애로 사항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불교고승연합회 복지지원단  
단장 경천 배상